

응급실 임상실습에 참여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The Experience of Paramedic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mergency Room Clinical Practice: A Grounded Theory Study

1차원고접수: 2023.10.10. 수정원고접수: 2023.11.26. 최종게재결정: 2023.12.13.

김유나¹

¹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Kim, Yu Na¹

¹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응급실 임상실습 경험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G지역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9명의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근거이론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이론의 방법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개방코딩과 축코딩 그리고 이론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14개의 범주, 36개의 하위범주, 128개의 개념들이 도출되었고, 핵심범주는 응급구조사로서의 전문직업관 정립으로 나타났다.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들은 응급구조사로서의 전문직업관 정립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작용/상호작용에서는 학업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 직업적성 탐색, 응급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느낌, 사회를 바라보는 창, 성장과 발전, 응급구조사로서의 미래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응급실, 임상실습 경험, 응급구조학과 학생, 근거이론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aramedic students' emergency room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elected nine students at the college in the G area and conducted the study using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them using grounded theory. Data analysis performed open coding, axis coding, and refining theory proposed by Strauss and Corbin based on grounded theory. To acquire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researcher categorized concepts through continuous questioning, comparative analysis, identifying essential things in the data, and giving meaning to them. As a result of this study, 14 categories, 36 subcategories, and 128 concepts were derived, and the core category was establishing occupational perspective as a paramedic. Causal context and intervening conditions influenced the central phenomenon of establishing an occupational perspective as a paramedic. In addition, actions/interactions showed an incessant desire for academics, exploration of vocational aptitude, and effort to adapt to the emergency room. Consequences appeared as a feeling of the importance of clinical practice, perspective on society, growth and development, and the future of a paramedic.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eeks to understand the paramedic student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raise social and policy interests.

Keywords emergency room,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paramedic students, grounded theor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마다 수집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

다. 기후 위기의 여파로 태풍 및 대형 산불과 같은 자연 재해를 비롯해 밀집화된 도시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재해 및 전염병의 유행, 관리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에 이르기까지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인명피해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대형 사고가 어느 때에 발생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Corresponding to 김유나 (Kim, Yu Na)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yippeeyuna@hanmail.net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신속하게 조치하고 재난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통해 인명을 구조하고 소생시키는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1995년 신설된 이래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서 1차 응급처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현장의 최전방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으로 병원, 소방 구급대 및 산업체 의무실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여 응급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황성학, 엄동춘, 2014). 이들은 응급구조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위급한 환자에 대한 중재가 가능하므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응급의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응급처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응급구조학과에서는 병원 응급실에서의 임상실습과 소방서 구급대의 구급차 동승 실습으로 나누고,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경험하고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의 임상실습은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박소미, 최은숙, 2012) 더욱 중요하다.

임상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응급실은 건강상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한 응급환자를 일차적으로 치료하는 장소로, 일반 병동과는 달리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다양한 진료과의 환자가 내원하고 대상자의 증증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처치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하고, 긴장감 속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수많은 요구에 대응하며 감정조절이 결여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의료진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응급실 환경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이기 때문에 강의실과는 달리 학생들

로 하여금 낯설고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대한 좌절감과 불만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보건계열의 대학생들은 다른 계열의 대학생들보다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선화, 박성희, 2013),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역시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을 높게 지각하고, 대인관계나 인지, 사회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 적응이 어려워지고 정서적인 문제부터 행동 및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한 기능장애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고봉연, 이정은, 2012). 그동안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실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최성수, 2013)를 비롯해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정 변인이 임상실습 만족도나 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김덕원, 김예림, 2020; 김민채, 박정희, 최효원, 김진영, 2022; 박대성, 남건우, 2007; 최미영, 문태영, 이현지, 2013)이 수행되었으며, 실습 중 겪게 되는 외상사건이나 언어폭력, 죽음 등 특정 현상과 관련된 연구(김무현, 이정은, 2023; 김현숙, 이인수, 양현모, 2015; 안희정, 2018)가 이루어졌다. 과거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가 한 차례 수행되었으나(백미래, 2003), 이후 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응급의료체계가 발달한 현시점에서 학생들이 응급구조사로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료 인력으로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경험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임상실습 과정을 파악하고,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에서도 근거이론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Corbin & Strauss, 2007; 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은 개인의 행위 혹은 사회적 현상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미가 생성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탐구하

는 연구방식으로, 다른 질적연구 방식에 비해 인간행위 및 사회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과정을 밝혀 이론모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Corbin & Strauss, 2007).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간호학과나 다른 보건계열의 학생들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실습 환경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긴급하게 전개되는 현장에서 심각한 상해나 실제적인 죽음, 신체적인 난관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주된 실습이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응급실 임상실습 과정에 관한 이론을 생성하고,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응급실 임상실습을 통한 실습과정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경험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응급실 임상실습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연구문제 2.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응급실 임상실습 경험에서 전문직업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칙을 기초로(Denzin & Lincoln, 2018) 응급실 임상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가능하고 연구참여에 관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를 표시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참여자는 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로,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9명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를 승낙한 9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정보

이름	나이	성별	학년	실습 기관	실습 소재지
1. 정원희	만 21세	여	2학년	대학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대구광역시
2. 이치혁	만 21세	남	2학년	종합병원 응급실	울산광역시
3. 박은준	만 21세	남	2학년	종합병원 응급실	경상남도
4. 김화진	만 22세	여	2학년	대학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경상북도
5. 강연주	만 22세	여	2학년	대학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부산광역시
6. 최동준	만 26세	남	2학년	대학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경상남도
7. 이승욱	만 26세	남	2학년	대학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경상남도
8. 김나래	만 27세	여	2학년	대학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대구광역시
9. 오성민	만 27세	남	2학년	대학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부산광역시

주. 연구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 것임.

2. 연구절차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실질적인 의미나 경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자신에 대한 개념과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하는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가장 핵심적인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깊이 있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고자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되 질문 방식에 자율성을 가지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인터뷰 가이드는 임상실습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도질문은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심층 면담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연구자와 일대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가 각각 2~3회로 회당 60분에서 10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허락하에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하였으며, 일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시 녹음에 대하여 연구자와 충분한 합의를 통해 동의하였으며, 대화를 녹음한 자료들은 모두 전사 작업 후 문서화하여 보관하였다.

표 2. 면담내용

질문 내용
1.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임상실습 과정 중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 동료 실습생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4. 실습지도 응급구조사와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5. 환자나 보호자들과 교류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습니까?
6. 임상실습 경험이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7. 응급구조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8. 임상실습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개방코딩에서 연구자는 텍스트

를 검토하여 지속적 비교접근을 통해 범주를 포화시키고자 한다. 범주들은 속성이라는 하위범주들로 구성되며, 속성들은 차원화되고 연속선상에 제시된다(Creswell, 2013).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의미단위로 분석하여(Corbin & Strauss, 2007; Strauss & Corbin, 1998) 계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128개의 개념, 36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축코딩은 범주들을 속성과 차원의 선을 따라서 하위범주들과 연결시키는 행위로, 축코딩에서 패러다임은 이론 생성을 위한 분석적 틀로서 각 범주들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결하여 전체과정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조화해 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조건들, 작용과 상호작용, 그리고 작용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무엇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모형을 구성하고 중심현상을 설정하였다(Corbin & Strauss, 2007; Strauss & Corbin, 1998).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상황모형을 활용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과정에 대한 이론을 생성하였다. 상황모형은 상황적 조건(인과적, 맥락적, 중재적)과 작용/상호작용이 어떻게 연관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사건과 경험의 과정적인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엄격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전에 메스컴이나 보도 영상을 통해 응급실 의료진들을 이해하고 응급의료와 관련한 서적 및 다양한 자료들을 탐독하여 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경청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들의 단어와 관념에 의존해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는지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진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흐리거나 연구가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마치고 나면 즉시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였으며, 자료의 중복성을 위해 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 면담에서 재확인하였다. 셋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면담의 내용에 관해 연구참여자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를 함께하여 각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판단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학제적 의미와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질적연구 전문가 1인의 조언과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질적연구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근거이론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에 참여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경험을 진실성 있게 접근하여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대한 최대한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윤리적인 부분

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가 원한다면 연구진행 과정 중에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였으며, 연구보고서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은 연구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추후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자료는 연구의 종료와 함께 폐기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응급실 임상실습 경험과정에 관한 개방코딩

본 연구에서는 전사된 인터뷰 내용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 과정을 통해서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위범주와 범주로 모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추출과정을 통해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분류하고 128개의 개념, 36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응급실 임상실습 경험과정에 관한 개념, 하위범주, 범주 분류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부품 기대감을 안고 임상실습 시작	응급구조학과 동기	응급구조학과 진학동기
		실습생 대우	눈치보임, 무시당함 짐처럼 생각함, 실습처치의 한계
	선택에 따른 실습기관	종합병원에서 실습	2차 병원에서의 실습, 응급구조사 부재
		대학병원에서 실습	3차 병원에서의 실습, 다양한 환자케이스 1:1 실습지도 방식, 응급실 분위기
맥락적 조건	고군분투의 현장 응급실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체력적으로 힘들, 생활패턴이 깨짐 방 구하기 힘들, 실습비 지원, 번아웃
		실습생으로 겪는 어려움	학업병행, 답답함, 소극적인 자신에 대한 의구심, 아쉬움
		실습일지 작성의 어려움	실습일지 괴리감, 실습일지 당황함, 실습일지 어려움 실습일지 분량, 실습일지 스트레스, 실습일지 힘들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맥락적 조건	미흡한 실습체계	실습지도에서의 차이	실습 내용이 다름 평가 기준이 다름
		학교 개선점에 대해 생각함	교과목 개편, 병원 학교 간 소통이 부족함 사전교육이 요구됨, 실습지 개선, 실습기간
		병원 개선점에 대해 생각함	실습담당 응급구조사에게 바라는 점 실습체계 안 잡힘
중재적 조건	의료행위 경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CPR 긴장감, CPR 당황함, CPR 두려움 CPR 무서움, CPR 압박감, CPR 죄책감
		보호자에게 느끼는 정서	보호자 스트레스, 보호자 안타까움 억울한 마음이 들
		환자에게 느끼는 부정적 정서	환자 두려움, 환자 무서움, 환자 부담됨 환자 스트레스, 환자 슬픔, 환자 안타까움 환자 죄책감, 환자 충격받음
		환자에게 느끼는 긍정적 정서	환자 자부심, 보람을 느낌 뿌듯한 마음이 들
	응급실 내 대인관계 형성	실습지도 응급구조사들과의 관계	배려해줌, 서운함, 조언을 해줌
		실습생들과의 긍정적 관계	실습생 도움을 주고 받음, 실습생 의지함 실습생 정보교류, 실습생 친해짐
		실습생들과의 부정적 관계	실습생 불성실함, 실습생 비교됨 실습생 선발기준, 실습생 의견충돌, 실습생 이기적임
중심현상	응급구조사로서의 전문직업관 정립	응급구조사들을 바라봄	응급구조사 멋있음, 응급구조사 본받을 점 응급구조사 친밀함, 응급구조사에게 배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	응급구조사 처우, 응급구조사 필요성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응급구조사 전문성, 타직업군 과 친밀함
		응급구조사를 바라보는 시선	응급구조사 무시, 응급구조사 인식개선 응급구조사 지위
작용/상호작용	학업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	학업의 어려움과 부족함	학업의 어려움, 부족함을 느낌 성적이 염려됨, 컨퍼런스 걱정됨 실습에 임하는 태도, 환자처치에 어려움을 느낌
		학업의 즐거움	학업의 즐거움, 학업의 필요성 컨퍼런스 공부가 됨, 컨퍼런스 뿌듯함
	직업적성 탐색	직업적성이 맞음	감정이입이 안 됨, 적성에 맞음 비위가 좋음, 환부가 신기함, 진로확신
		직업적성이 안맞음	감정이입, 적성에 안 맞음 비위가 약함, 실습목표 없음 심리상담, 진로고민, 직업에 대한 의구심
	응급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학업에 열중함 실습에 적극성을 띠	열심히 공부함, 배우기 위해 노력함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함, 적극성이 요구됨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느낌	실습의 장점을 알게 됨	경험에 도움이 됨, 학업에 도움이 됨
		실습일지 장점을 알게 됨	실습일지 도움됨
	결과	사회현상	사회현상에 대해 생각함
		사회계층	노동자, 취약계층
		다른 직업군에 대한 이해	간호법에 대한 생각,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간호사의 권리, 간호사의 처우, 소방관에 대한 생각
		인격체로서 성장	삶에 대한 태도, 생활태도 개선 죽음에 대한 태도
	성장과 발전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성장	발전된 모습, 술기 능력이 향상됨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결과	응급구조사로서의 미래	응급구조사로서의 꿈	미래의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되고 싶은 마음
		응급구조사로서 필요한 요건	응급구조사로서 갖추어야 할 점, 체력의 중요성
		국가고시	국가고시 걱정, 국가고시 부담감

1) 인과적 조건

개방코딩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하였으며,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기대감을 안고 실습을 시작하였으나, 낯선 응급실 환경에서 마치 외딴섬처럼 존재함을 경험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부분 기대감을 안고 임상실습 시작이라는 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실습기관으로 선택하였으며, 실습기관에 따라 임상실습의 장단점이 존재하였으므로, 연구자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에 따른 실습기관이라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범주는 임상실습 초기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연구자는 이를 인과적 조건으로 분류하였다.

(1) 부분 기대감을 안고 임상실습 시작

연구참여자들이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매체에서 보도되는 구급대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응급구조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사고로 인해 응급실에서 겪게 되었던 경험이나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습을 시작하는 학기가 되어 기대감을 안고 임상실습에 참여하였으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환경 속에서 실습생의 존재는 응급구조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마치 번거로운 일처럼 느껴졌다. 이에 학생들은 응급실에 소속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기 일쑤였으며, 실습생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하였다.

왜 응급구조사에 쫓겼냐면 제가 교통사고가 크

게 났었거든요. 그때 뭔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저는 한 명의 환자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사람이 저를 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연구참여자 최동준).

눈치는 진짜 많이 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서는 뭔가 응급처치를 하는 행위가 많은데 저희가 선불리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좀 답답하기도 답답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선생님들이 먼저 권유해 주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김화진).

(2) 선택에 따른 실습기관

참여자들의 임상실습이 이루어진 실습기관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응급환자나 외상환자가 다수인 대학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실에 포진된 응급구조사의 수가 많고, 환자의 케이스도 매우 다양하여 학생들이 배움을 얻어나가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응급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종합병원이거나 응급구조사들이 상주하지 않는 병원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실무를 익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병원 운영체계에 관해 알게 되었다.

저는 울산에 간 것도 친척집이랑 도보로 5분 거리라서 병원을 울산으로 선택해서 갔던거거든요. 방을 구하는게 한 달 짜리 방을 잘 안 줄려고 그래서...근데 병원마다 제일 큰 차이는 구조사가 있냐 없냐라서... 그냥 저희를 봐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하고. 봐준 사람이 있고 실습을 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00병원은

그냥 거의 잡일만 하다 왔어가지고 (연구참여자 이치혁).

3차 병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병원으로 갔어요. 2차 병원 같은 3차 병원? 어떻게 보면 다른 대학 병원에 비해 나름 여유로웠고 거기는. 솔직히 저는 처음이 조금 기초를 쌓는 느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구조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그런 거를 좀 봐야 그래도 실습했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병원 가서 병원 응급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다는 느낌이 솔직히 저는 강하기는 해요. 확실히 구조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구조사 선생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곳에서 실습한 친구들은 경험도 그렇지만 지식이 진짜 풍부하게 늘어서 와요 (연구참여자 김화진).

2) 맥락적 조건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실습 기관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과 생사가 오가는 응급실 현장에서 실습생으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및 실습일지 작성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고군분투의 현장 응급실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병원별로 실습지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의 미흡함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나 병원의 개선점에 대해 생각하였으므로 미흡한 실습체제로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범주는 응급실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들로 연구자는 이를 맥락적 조건으로 분류하였다.

(1) 고군분투의 현장 응급실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으로서 응급실을 처음 경험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 긴장감과 실수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 이에 더해 임상실습이 3교대 근무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했으며, 실습처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병원 근처에서 단기간의 자취를 하거나 가까운 친척 집에서 오고 가야 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신체적인 피로도 높아졌다. 또한 쏟아지는 과제들과 컨퍼런스 준비, 실습일지 작성 등으로 인해 점점 지쳐갔다. 실습과 학업의 병행은 스트레스와 체력소진의 원인이 되었으며, 환자 케이스의 선정부터 증상의 분석까지 익숙하지 않은 실습일지의 작성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체력적으로 8시간을 서 있기도 하고 진짜 제가 병원 실습하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2만 보를 걸었어요. 병원에서만. 근데 그러고 집에 가면 씻을 힘도 없거든요. 녹초가 되는데,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거예요. 실습일지인 거죠. 그거를 써서 또 선생님들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진짜 힘들었거든요 (연구참여자 김화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습일지 어떻게 쓰라 정확히 배운 적도 없는데 바로 그냥 가가지고 실습일지 쓰라고 하니까. 처음에 쓸 때 3시간 걸렸어요. 두 개 쓰는데. 어디 부분을 정확히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많이 헛갈려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정원희).

(2) 미흡한 실습체계

실습 병원마다 각기 다른 실습지도 방식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극명한 경험의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응급구조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실습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많은 병원의 경우 실습내용이나 지도방식이 비교적 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사의 실습지도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추상적으로 배워왔던 이론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들의 증례를 통해 현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 지식과 기술들에 대한 배움을 넓혀나갔다. 반면 응급구조사가 없거나 지도 경험이 부족한 경우 실습체계가 미

비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임상실습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하였다. 특히 응급구조사가 있지만 구조사가 다른 포지션에서 근무하여 응급실에 없는 경우 수간호사들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전담하여 실습을 지도하였으므로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습내용으로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었다. 또한 임상실습 역시 교육과정이므로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성적이 산출되는데, 성적이 곧 취업으로 연결되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응급구조학과 학생들도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참여자들은 병원마다 다른 평가 방식에 불공정하다고 느꼈으며, 평가 결과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학교와 기관 간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발생한 미흡한 평가방식은 연구참여자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으며, 학교와 실습기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다.

진짜 케이스도 솔직히 더 많았고, 환자 유형도 훨씬 많았고 볼 수 있는 것도 많았고. 구조사 선생님들이 있으시니까 구조사 선생님들이 뭘 하는지도 많이 알고, 선생님들이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도 많아서 진짜 많이 공부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김화진).

저희는 실습한 건 별로 없는데 실습서를 가득 채웠으니까 점수를 잘 받고. 여기는 진짜 엄청나게 고생해서 실기는 다 해봤는데 실습서를 못 채워서 점수를 못 받고.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기준이라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형이 있던 000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이 봤는데 실제로 실습서 체크하는 거는 저기 위에 다른 행정과에서 체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점수를 (연구참여자 박은준).

3) 중재적 조건

연구참여자들은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 의료행위를 경험하였으며, 응급처치의 직접적인 대상인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였다. 또한 응급실 내에서 실습지도 응급구조사들을 비롯해 또래 실습생들과 대인관계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범주는 연구참여자들이 임상실습 과정에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들로 추후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자는 이를 중재적 조건으로 분류하였다.

(1) 의료행위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실시하거나 외상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를 가까이서 보조함으로써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익혀나갔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데 일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양호해지면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반면 증상이 호전되지 못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 환자에 대한 미안함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 다양한 정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응급실에서의 삶이 고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환자 눈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눈을 본 거예요. 완전 초점 없는 눈이었는데 차갑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서웠고, CPR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엄청 떨었거든요. 왜냐면 심정지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마네킹만 CPR을 해봤었지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진짜 많이 떨었거든요. 긴장도 엄청 많이 하고 (연구참여자 정원희).

실습 첫날 1시간 만에 CPR 환자가 왔었는데 저

도 솔직히 못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는 걸 보겠어요. 근데 저희가 안 하면 누가 선뜻 못하잖아요. 저도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아 가지고. 사람이 검게 변하니까. 근데 처음이 어려웠지, 한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많이 살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두 분 인가 살렸는데 그게 또 살리고 나면 가족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 보면 또 좋았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연구참여자 김나래).

(2) 응급실 내 대인관계 형성

연구참여자들은 응급구조사들이나 다른 학교의 실습생들과 돈독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응급실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응급 의료 현장에서 먼저 길을 걸었던 선배 응급구조사들의 조언과 격려를 통해 응급환자 처치 시 엄습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으며, 다른 학교에서 실습에 참여한 또래 실습생들과 실습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응급실에서의 빠른 적응과 실습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같은 학교에서 함께 실습에 참여한 동기 학생들과 실습의 어려움에 대해 나누고 서로 의지하는 등 원만히 잘 지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학생들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학생들 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실습지에서 동료 학생들과의 대인관계는 실습이 끝난 후에도 학교생활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쌤들이 잘 챙겨주시기도 했고. 막 저희가 나이트를 하면 이제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데 쌤들이 간식도 막 계속 사주고 같이 먹자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응급구조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학교 얘기도 하고. 또 약간 너는 나중에 이랬으면 좋겠다 라면서 얘기도 해주셔서 지고 (연구참여자 강언주).

동생들이 아무래도 융통성이라는 게 조금 없긴 하더라고요. 융통성이 좀 없고 그리고 싫은 말 해

도 조금 웃어 넘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없고, 시간 개념도 잘 없고.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지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생들한테 말을 좀 잘해서 타일러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김화진).

4) 중심현상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하였지만, 실습을 통해 응급구조사로서의 직업관을 정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중심현상을 응급구조사로서의 전문직업관 정립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의사나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과 함께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전문 응급구조사만이 가진 직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해 생각하고, 응급구조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책무에 관해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의료진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응급처치를 비롯한 생명 유지, 통증 경감, 이차 손상의 예방 등에 관한 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므로 연구참여자들이 임상실습에서 응급구조사들의 직무수행을 바라보면서 다른 의료진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의료업무를 긴밀히 수행하는 과정에 관해 습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 반해 응급구조사들의 사회적 지위나 병원 내 처우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명확하지 못한 업무 범위로 인해 다른 의료진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아 환자나 동료 의료진들로부터 무시나 차별대우를 받아 응급구조사들의 처우가 생각과는 달리 녹록지 않다는 점들도 알게 되었다.

심전도라고. 거기에 관해서는 응급구조사 쌤들이 확실히 특출나다고 생각해요.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심전도 표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뽑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잘 모르셨나 봐

요. 근데 거기 최고참 응급구조사 선생님이 와서 봤는데 딱 봐도 심근경색 그래프인거예요. 이젠 좀 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교수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심근경색이라고 빨리 처치해야 된다고 (연구참여자 이승옥).

쌤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기는 한데. 직업에 대해서 뭔가 한 번씩 무시당했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거 듣고 좀... 아 나름 그래도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건데... 쌤들도 한 번씩 그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좀.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병원에 동료 쌤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구조사 쌤들은 썩 다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인 것부터가 뭔가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강연주).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에서는 응급구조사로서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해 어떻게 응급실에 적응해 나가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학업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 직업적성 탐색 및 응급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세 가지의 작용/상호작용 범주가 나타났다.

(1) 학업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

연구참여자들은 응급실에서 실습하면서 공통적으로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학용어의 사용이 의사소통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응급환자의 진단이나 처치 시 의학전문 용어들을 알아듣지 못하면 실습을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응급구조학과 특성상 응급처치에 관한 기본적인 전공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를 배우고 이해하는 데 제약이 따르므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는 더욱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실히 느꼈던 부분은 용어예요. 의학용어. 왜냐하면 응급실에서는 정말 다 의학용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못 알아듣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환자 기록 차트도 보고 근데 거기에도 한글로 안 써져 있고 다 의학용어로 써져 있어가지고. 의학용어는 좀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이승옥).

지금 한 공부로는 부족하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국시를 위한 공부인 것 같고, 선생님들 보니까 계속 모르는 걸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공부가 끝이 아니구나. 한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박은준).

(2) 직업적성 탐색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실습에서 응급 처치 과정이 매우 흥미롭거나,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보람을 느끼는 경우 응급구조사가 자신의 천직이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의 과정에서 응급실에 잘 적응하여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실습을 잘 마무리하여 학교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반면에 심정지 환자나 외상이 심한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자신의 적성과 선택한 전공에 대해 고민하며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PR 하고 있는 도중에 제 가운데 피가 다 묻은 거예요. 뭔가 아 더럽다 이런거 말고. 나 방금 열심히 CPR 치다가 왔구나. 이런거 하려고 응급구조사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계속 해야겠다. 약간 확신을 얻었던 것도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서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뿌듯한 것도 있고 (연구참여자 강연주).

CPR 환자 온다는 소리 듣고 현장에 가면 오기

도 전에 진짜 몸이 벌벌벌 떨리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상황이 무섭다기보다는 제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냥 계속 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응급구조사가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환자들이 올 때마다 계속 신경쓰여하고 그러면 판단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별로 저한테 맞는 직업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연구참여자 정원희).

(3) 응급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잘 알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응급구조사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배움을 얻고자 하였으며, 술기에서도 잘 해내지 못하면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여 응급실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그냥 제가 좀 많이 귀찮게 했거든요. 모르는 거 다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려는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른다고 해서 그게 막 부끄럽고 그런 건 아니라서. 잠깐 창피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연구참여자 최동준).

처음에 당황스러웠죠.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 봤을 때는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론을 배워간 게 없다 보니까 제가 뭘 해야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멍뚱멍뚱 보고 있었죠. 처음에 그것 때문에 혼이 났거든요. 응급구조사 선생님한테. 너는 그래도 응급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이런 경우에는 네가 튀어나와야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가지고 그 말을 듣고 아 맞다 저 말은 맞는 말이다. 이걸 내가 혼나도 할 말이 없다 생각해서 오기가 생겼죠 (연구참여자 이승욱).

6) 결과

작용/상호작용에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네 가지의 임상실습 결과가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느낌, 사회를 바라보는 창, 성장과 발전, 응급구조사로서의 미래라는 범주들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느낌

병원에서 힘든 실습생활을 견뎌나가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고,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응급구조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실습일지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학업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눈으로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커요. 학교에서는 책이나 교수님들이 보여준 영상 그런 게 단테, 나가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고 어떻게 처치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외상 환자들도 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도 확실히 보는 것만 해도 많이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김화진).

응급구조사분들이 하는 업무들 중에 몇 개는 보면 아 저거는 학교에서 책에서 봤던 그거구나 싶은 것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해야 되는 정석적인 방법이 있고 근데 또 응급실에 가면 너무 바쁘니까 그걸 건너뛰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학교에서는 못 배우고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거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저는 많이 봤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요 (연구참여자 최동준).

(2) 사회를 바라보는 창

연구참여자들은 응급실이라는 창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장되었다. 응급환자로 병원에 이송되어 오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지닌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나 자살, 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해서도 다시금 성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걸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응급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구급대원 등 다른 직업군에 대한 이해도 넓혀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근로자분이 떨어지고 박혀가지고 온 거 많이 봤었는데. 그때 보통 교육은 들었냐, 장구는 착용했냐 이런 거 다 물어보셨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근데 막 어떤 분들은 보호장구를 착용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교육을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아직은 좀... 솔직히 안전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마음도 안 좋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강언주).

꽤 충격이었던 거는 간호사 선생님들이었어요. 몸이 3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도대체 저걸 어떻게 다 해내고 있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량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간호법 반대하는 거로 생각했을 정도로 간호사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김화진).

(3) 성장과 발전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삶의 양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습 전에 비해 개인 내적인 성장에 관심이 많아졌으며, 가치관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의학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술기능력의 향상 등 발전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들은 응급실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오고 가는 위급한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였다. 실습 초기에 환자의 죽음을 목격하였을 때 놀라고 슬픈 감정을 경험하였으나, 실습이 진행될수록 점차 환자의 죽음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죽음에 익숙해지는 응급구조사는 되지 말자며 스스로를 다잡았으며, 의료인으로서 생명의 존엄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보고 나서 실습 끝나고 학교로 와서 ACLS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응급실에 있던 상황이란 이렇게 탁 매치가 되면서 이론이란.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됐어요 (연구참여자 오성민).

첫날. 실습 첫날부터 사람 죽은 거 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러고 한 일곱 번이나 더 봤나 그랬어요. 나는 사람 죽음에 익숙해지지 말자. 다들 텅텅해보이는 게... 죽는거 보면 힘들기도 힘들었었는데,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내 자신이 좀 싫었다고 해야 되나? (연구참여자 이치혁).

(4) 응급구조사로서의 미래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실습 후 응급구조사로서의 미래를 공고히 다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을 통해 응급실의 응급구조사나 소방대의 구급대원으로 갈지 진로의 방향성이 구체화 되었으며,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응급구조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짜 학교에서 주구장창 이론만 배우는 것 보다는 확실히 보고 배우는 게 더 많아서 그냥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고민에 있어서도 조금 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자 이 생각이 구체화 됐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강언주).

국시요. 걱정되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시험이니까. 걱정되긴 하는데 막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요 저는. 국시치고 병원 가서 2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죠 (연구참여자 이승욱).

2.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응급실 임상실습 경험과정에 관한 축코딩과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에서는 전사된 자료들에 대한 반복적 비교정을 통해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위범주와 범주를 형성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사로서의 전문직업관 정립을 중심현상으로 설정하였다(Corbin & Strauss, 2007; 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들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의 모습을 통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회적 책무에 관해 고민하며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전문직업관을 정립해나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인과적 조건을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응급의료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임상실습에 참여하였으며,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군분투의 현장인 응급실을 맥락적 조건으로 보았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존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학업을 이어 나가는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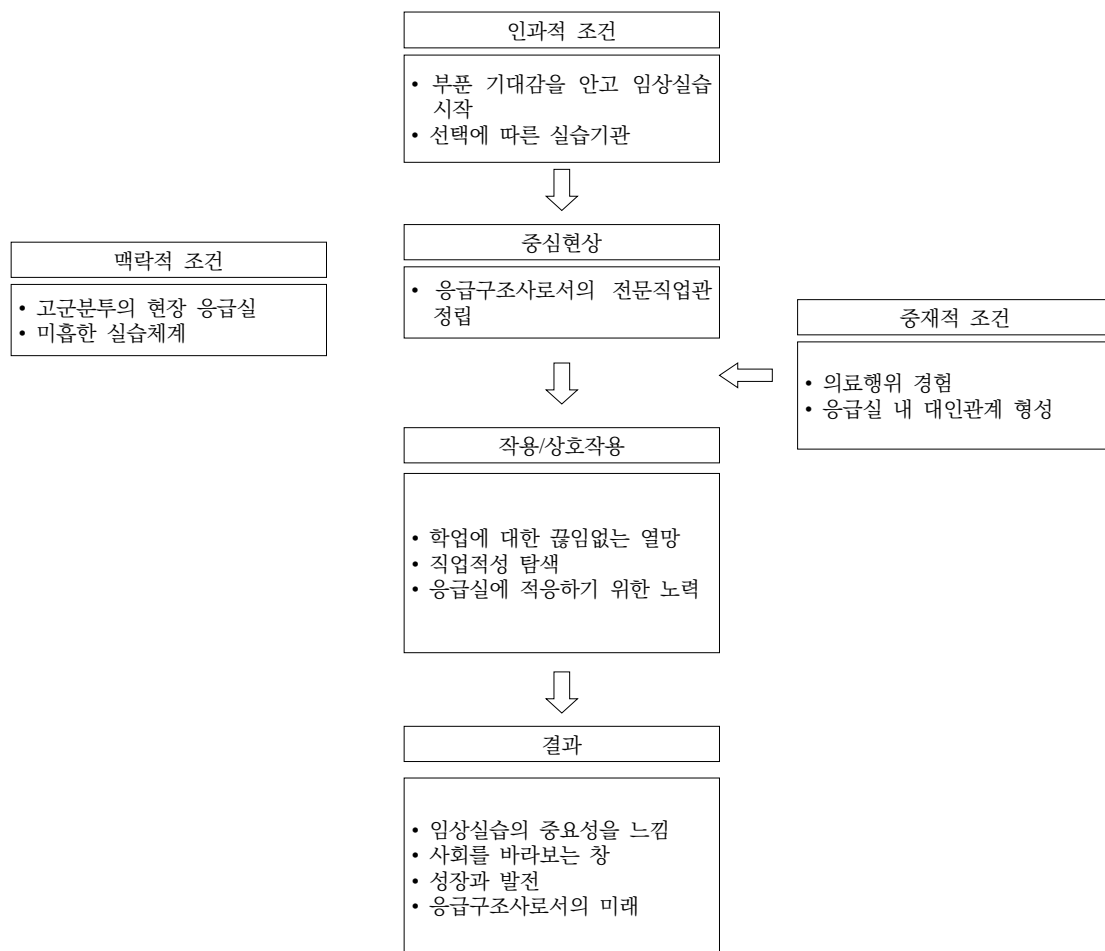


그림 1.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활은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학교와 실습 병원 간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과 미흡한 실습체계는 임상실습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응급환자들을 상대로 직접 처치해 보는 의료행위 경험과 임상실습에서 겪게 되는 실습지도 응급구조사들과 동료 실습생과의 대인관계 형성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힘든 실습과정이지만 응급실 업무와 일상생활에 점차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사로서의 전문직업관 정립이라는 중심현상을 관리하고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학업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직업적성 탐색 및 응급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작용/상호작용으로 보았다. 학생들이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학용어나 응급처치에 관한 기초지식이 요구되었다. 학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하지만 응급환자들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양태를 살피거나 환부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두려움에 압도당하거나 비위가 약한 경우 전공에 대해 고민하고 다른 진로를 탐색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습활동에 참여하면서 응급실에 적응하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응급구조사로서 자질을

갖추는데 임상실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고 현장의 응급구조사들을 거울삼아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생과 사가 오가는 응급실의 특성상 환자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응급환자들을 통해 사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3.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서 전문직업관 정립과정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과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나온 결과를 요약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상황적인 조건들인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들이 어떻게 작용/상호작용과 결합하여 어떤 결과들이 도출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론모형으로 도출하였다 (Corbin & Strauss, 2007). 이론모형에서 핵심범주는 응급구조사로서 직업관 정립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들의 직무를 배우고 익히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전문성 등에 대해 생각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동료 의료인 및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처우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재고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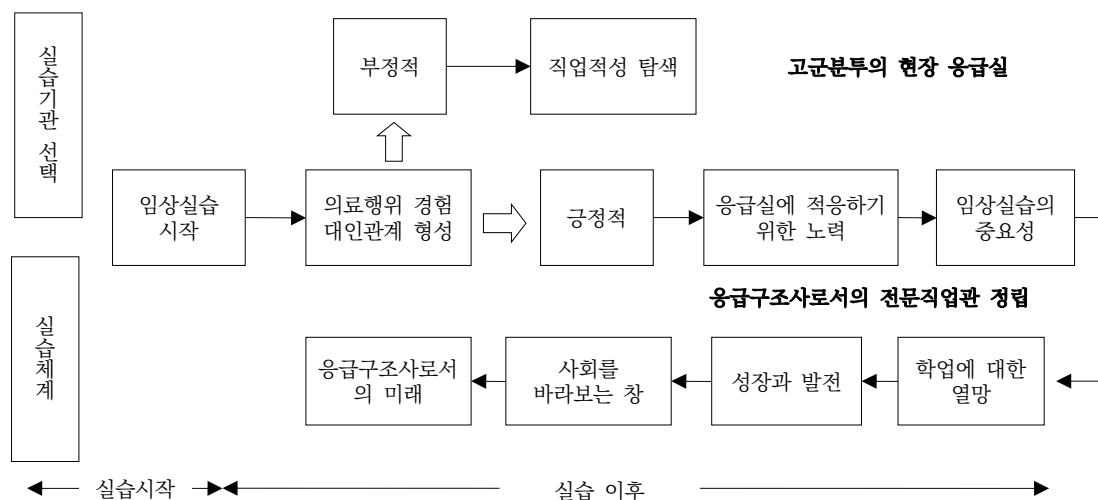


그림 2. 응급구조사로서의 전문직업관 정립과정

실습 전과 임상실습 후의 과정을 바탕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어떠한 계기로 임상실습에 참여하고, 실습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은 어떠하며 그 결과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가를 바탕으로 응급구조사로서의 전문 직업관 정립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실습 시작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하였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이 필수 불가결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부푼 기대를 안고 실습에 참여하였으나, 실습 이면에는 병원 규모 및 응급구조사 유무에 따른 일괄적이지 못한 실습기관과 미흡한 실습체계가 존재하였다. 이는 후에 학생들에게 경험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불러오고, 실습평가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학생들은 생명의 존각을 다투는 응급실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실습과 학업을 이어 나갔다. 3교대 근무와 실습일지 작성, 과제 수행 등으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단하였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와 같은 의료행위의 경험과 응급구조사나 실습생들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응급의학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힘든 실습생활을 이겨나가게 해주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긴장감에 압도되거나 과도한 감정이입 혹은 환부에 역겨움을 느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거나 환자나 보호자 및 의료진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실습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자신의 직업적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스스로가 응급구조사로서의 자질과 상황 대처 능력 등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의료행위 경험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는데 치료 과정이 신기하여 배움에 대한 의욕을 일으키고 학생 개인의 만족도나 대인관계에서의 정서 경험이 긍정적인 경우 응급구조사로서 진로를 더욱더 확고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명을 구하는 행위에 대한 뿌듯함과 자긍심으로 실습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힘든 응급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이 의학용

어이기 때문에 의학용어 실력의 향상과 응급구조사로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업에 열의를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은 응급실 실습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부터 시작하여 외상에 따른 응급처치와 의료 장비의 사용까지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익혀나가며 임상실습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의 결과로 의학 지식의 확장과 실무능력의 향상 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곧 응급구조사로서의 진로 정체성 형성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등 개인 내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 한편, 응급실이라는 창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체감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응급구조사로서의 미래를 준비하였다. 국가고시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내재하였지만, 필기와 실기시험의 영역에서 자신의 강점과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응급구조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여건에 대해 개선하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는 경험 과정에서의 실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순환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9명을 대상으로 면담하고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서 128개의 개념, 36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을 응급구조사로서의 전문 직업관 정립으로 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응급실에서 응

급구조사들의 역할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직무역량과 전문성에 대해 배워나갔으며,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상 응급구조사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관해 재고해보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경험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에 차이가 있으며, 간호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실습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조현아, 김남희, 2014)와 관련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응급구조사들의 실무를 경험하고 의료전문직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응급구조사로서 전문직업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인과적 조건에서 학생들은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임상실습에 참여하였으나, 응급실의 낮은 분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좌절을 경험하였다. 실습생에 대한 의료진의 무관심과 일부 환자나 보호자들의 적대적인 태도는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게 하고 눈치를 보게 하였다. 이는 임상실습 대처 경험 연구에서 학생들이 정식 구성원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적응한다는 연구(오두남 등, 2016)와 관련된다. 이를 위해 실습 초기에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의료 인력으로서 현장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실습담당 응급구조사들과 의료진들의 따뜻한 관심이 요구되며, 비교적 간단하거나 비침습적인 술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원활하고 빠른 적응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이 실습에 임한 병원은 종합병원부터 시작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르기까지 실습지의 종류가 다양하고 실습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실습 병원의 규모가 큰 병원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김영희, 2009; 유광열, 김현수, 2006)와 관련된다. 응급구조사가 다수 포진해 있는 대학병원 이상의 경우 실습생을 지도한 경험이 많고 다양한 환자 케이스와 폭넓은 술기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시 응급구조사 유무와 실습지의 운영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실습처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맥락적 조건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실습과 학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응급실에서 3교대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신체적인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실습평가를 위한 과제, 시험, 컨퍼런스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실습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켰으며, 특히나 실습일지의 작성은 실습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이는 실습학기제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이 학업과 더불어 실습일지 작성에 대한 부담이 크며, 실습일지를 반복적으로 써야 하는 불편함과 실습분량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한다는 연구(김용진 등, 2022)와 관련된다. 간호, 의/약학 및 보건계열 학생은 타계열 학생들과 달리 임상실습에서 많은 긴장감과 피로를 경험하며 과도한 피로는 흥미나 요구도, 만족도 감소는 물론 인내력과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고 피로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 정도와 불안이 증가한다(김창숙, 김란, 김영재, 박명희, 박인순, 2005; 원종순 등, 2000). 이에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학업수행 및 실습일지 작성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사례를 통한 실습일지 작성의 사전교육이 요구되며, 학생들이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학업을 수행하거나 실습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적인 공간이나 시설이 실습기관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미흡한 실습체계와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임상실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교육 과정상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지식과 술기 능력의 미숙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를 대처하는 데 미흡함이 많았으며, 이는 곧 자신감의 부족과 소극적인 실습참여의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의학용어와 같은 기초의학 및 전공 강화 교육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강화하고, 학내 실습실을 상시 개방하여 응급처치에 요구되는 핵심적인 술기들을 충분히 익히고 임상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와 지속적인 학업 열의를 위해 환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응급처치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통

합적인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임상실습 담당교수는 실습 전 병원의 담당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실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하며, 학교와 병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실습 커리큘럼과 명확한 평가기반을 마련하여 임상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줄이고 평가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재적 조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의료행위 경험 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긴장과 두려움 혹은 공포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개인이 체감하는 정도가 또래 실습생들에 비해 심할 경우 다른 진로를 고민하기도 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병원임상 및 구급실습을 수행하기 전에 비해 실습 후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김현숙 등, 2015)와 관련된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실습 전 어떠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보다 실습 시행 후 중증 환자들을 처치하면서 외상 사건의 빈도가 높거나 증상이 심각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임상실습 완료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내 학생상담센터를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육과정 중 스트레스 관리나 트라우마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학생 스스로가 스트레스에 대해 관리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병원 내에서 응급구조사를 비롯하여 동료실습생, 의료진 및 환자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였다.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실습생과 간혹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바쁜 응급실 현장에서 동료실습생이나 응급구조사와의 돈독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임상실습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과의 관계에서 실습생으로서 차별을 당하거나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무시 혹은 폭언과 같은 갈등상황에 노출된 경우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영역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의사, 간호사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료학생과의 관계에서 가장 적게 나타난 연구(안흥기, 전화연, 김결, 1999)와 관련된다. 이에 학생 스스로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경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가 요구되며, 학교에서도 환자나 보호자를 대할 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을 학업에 대한 열망과 직업적성 탐색 및 응급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실습 과정이 경과함에 따라 응급실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응급환자 처치 시 뒷걸음질 치기보다는 마음을 다잡고 적극적으로 처치하였으며, 부족한 술기 능력에 대해서 연습하는 등 응급실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실습이 익숙해지자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며 자신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일조하거나 실습지도 응급구조사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경우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들은 빠른 실습 적응을 돕고 나아가 학업에 대한 열의도 높였다. 실습하면서 몰랐던 지식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였으며,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에서 제3유형의 자신감 획득형 학생들의 경우 실습 중간에 갈수록 마음이 해이해졌다는 진술문에 강한 부정의 결과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경험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되고 자신감을 획득해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기주도 학습을 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가연, 최은숙, 2017)와 관련된다. 이처럼 응급실에 적응하고 실습과정이나 내용이 만족스러운 경우 학생들은 응급구조사로서의 진로를 확고히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의 적성과 진로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였다.

따라서 실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응을 줄이고 실습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실습 항목을 참관실습과 술기실습 등으로 구분하여 난이도별 실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지도교수가 임상실습 현장에 방문하여 학생들의 개별 적응 상태를 파악하고 격려와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실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이는 임상현장실습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학생들이 실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습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기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연구(김명애, 김효은, 남승희, 2001)와 관련된다. 학생들은 또한 응급실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을 접하고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인식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재고하고,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응급실의 특성상 학생들은 다른 전공의 대학생들에 비해 환자들이 교통사고, 낙상, 폭력, 자살 시도, 학대 등 응급상황으로 내원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관해 인식할 수밖에 없고, 질병과 죽음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임상실습을 나간 간호대학생의 86%가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면서(박영숙, 김정희, 2017), 슬픔, 불안, 피로 등의 심리적 어려움과 죽음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Edo-Gual, Tomás-Sábado, Bardallo-Porras, & Monforte-Royo, 2014)에서 나타난 것처럼 환자의 죽음을 접할 기회가 많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죽음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과 부정적 정서 경험을 줄이기 위해 생명의 존엄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긍정적인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한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죽음에 관한 철학적 사유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과 술기 능력 향상 등의 학업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

리·정서적인 성장도 함께 보여주었다. 실습을 마무리하며 느꼈던 뿌듯함과 만족감은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응급구조사로서의 미래를 확고히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증가하고, 이러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권경남, 최은희, 2010)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내교육과 임상실습 교육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교과과정 개편 및 운영이 요구되는 바이며,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와 실습 병원 간의 산학협력 체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 개념과 범주를 구성한 후 범주 간의 관계를 만드는 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축코딩은 응급구조사로서의 전문직업관 정립이라는 중심범주를 바탕으로 자료를 조직화하고 구조를 과정과 통합시킴으로써 네 가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과 축코딩이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결과로부터 생성된 이론모형은 개방코딩과 축코딩보다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Corbin & Strauss, 2007; Creswell, 2013), 자세히 살펴보면 심층면담의 내용을 토대로 응급실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들의 경험 과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리한 것이다. 개방코딩과 축코딩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이론 모형으로 구성하여 나타내는 작업을 통해 임상실습 초기의 인과적 맥락과 실습 시작 이후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이 어떻게 작용과 상호작용을 해나가고 그 결과 학생들의 응급실 임상실습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드러내고 본 연구의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Corbin & Strauss, 2007; 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응급실 임상실습에 대해서 통일된 이론 생성과 발견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이론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탐색하여 전문직업관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이에 임상실습 시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응급구조사로서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격려와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며, 안정적인 실습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응급구조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시점에서 응급실 임상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의미 단위들을 규명하여 예비 응급구조사로서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하였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임상실습에 참여한 예비 응급구조사들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임상실습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응급실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임상실습의 시작, 실습의 어려움, 예비 응급구조사로서의 성장과정을 포함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들이 임상실습을 응급구조사로서 직업관을 정립하는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과 사를 오가는 긴급한 응급실 현장에서의 실습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습을 마무리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도식화하고 이론을 생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응급의료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직업적 이해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는 물론 병원 내에서 응급의료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한 업무 제한과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에 대한 낮

은 사회적 인식은 응급구조사의 이직률을 높이고 나아가 응급의료 체계상의 효율성을 저해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응급구조사가 되기 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응급구조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G지역 소재의 전문대학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제한하였다. 전문대학 응급구조학과와 경우 학제가 3년인 반면, 일반 대학 응급구조학과는 학제가 4년이므로, 교과과정상의 운영이나 임상실습기회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따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내부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워 심층 면담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관찰, 실습일지, 학과 공문 등 다양한 자료수집을 통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경험에 관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임상실습을 통해 실습지도 응급구조사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응급실 실습에 대한 예비 응급구조사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실습 의료기관 구성원들의 경험에 대해서도 탐구한다면 임상실습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고봉연, 이정은 (2012).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및 임상실습 만족도. 한국응급구조학회지, 16(3), 77-89.

- 권경남, 최은희 (2010).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4(1), 19-28.
- 김덕원, 김예림 (2020).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 및 자아존중감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1(5), 1675-1688.
<http://doi.org/10.22143/HSS21.11.5.119>
- 김명애, 김효은, 남승희 (200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유형: Q 방법론적 접근. *성인간호학회지*, 13(2), 327-339.
- 김무현, 이정은 (2023). 응급구조과 학생의 임상실습 중 경험한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7(1), 43-58.
<https://doi.org/10.14408/KJEMS.2023.27.1.043>
- 김민채, 박정희, 최효원, 김진영 (2022). 응급구조학 전공학생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능력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6(3), 149-159.
<http://doi.org/10.14408/KJEMS.2022.26.3.149>
- 김영희 (2009).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6(3), 307-315.
- 김용진, 김유나, 허인화, 하아영, 허혜민, 정선영, 조한익 (2022). 사범대학생들의 학기제 교육실습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29(4), 1-30.
<http://doi.org/10.15284/kjhd.2022.29.4.1>
- 김창숙, 김란, 김영재, 박명희, 박인순 (2005). 일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및 피로조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2), 151-160.
- 김현숙, 이인수, 양현모 (2015).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병원 임상 및 구급실습 중 외상사건 경험 및 그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0(4), 327-339.
- 박대성, 남건우 (2007). 응급구조과 학생의 성취동기와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11(3), 47-64.
- 박소미, 최은숙 (2012). 응급구조학전공 학생의 병원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응급구조학회지*, 16(1), 91-101.
- 박영숙, 김정희 (2017).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회복탄력성이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3(1), 37-47.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1.37>
- 백미례 (2003). 응급구조과 학생의 첫 임상 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7(1), 95-108.
- 안흥기, 전화연, 김걸 (1999). 응급구조과 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응급구조학회지*, 3(1), 43-54.
- 안희정 (2018). 병원 (임상) 실습 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경험하는 언어폭력에 대한 융합적 반응 및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0), 183-1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10.183>
- 오두남, 엄영란, 김춘미, 주세진, 최정현, 박명숙 (2016).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대처 경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4), 430-440.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4.430>
- 원종순, 김금순, 김경희, 김원옥, 유재희, 조현숙, 정인숙 (2000).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발 마사지의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7(2), 192-207.
- 유광열, 김현수 (2006). 대학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현황과 발전방향. *방사선기술과학*, 29(4), 303-310.
- 이가연, 최은숙 (2017).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임상현장실습 경험에 대한 인식유형.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1(1), 59-73.
<https://doi.org/10.14408/KJEMS.2017.21.1.059>
- 정선화, 박성희 (2013).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 *재활간호학회지*, 16(1), 47-54.
<https://doi.org/10.7587/kjrehn.2013.47>
- 조현아, 김남희 (2014).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업성 핵심요소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4), 548-557.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548>
- 최미영, 문태영, 이현지 (2013).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실습만족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3), 1301-1312.
<http://doi.org/10.5762/KAIS.2013.14.3.1301>
- 최성수 (2013). 응급구조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2), 759-767.
<http://doi.org/10.5762/KAIS.2013.14.2.759>
- 황성학, 엄동춘 (2014).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응급구조학회지*, 18(3), 63-75.
<https://doi.org/10.14408/KJEMS.2014.18.3.063>
- Corbin, J., & Strauss, A. (2007).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 CA: Sage.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Washington DC: Sage.
- Denzin, N. K., & Lincoln, Y. S. (2018).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5th ed). CA: Sage.
- Edo-Gual, M., Tomás-Sábado, J., Bardallo-Porras, D., & Monforte-Royo, C. (2014). The impact of death and dying on nursing students: An explanatory model.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3(23-24), 3501-3512.
<https://doi.org/10.1111/jocn.12602>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CA: Sage.